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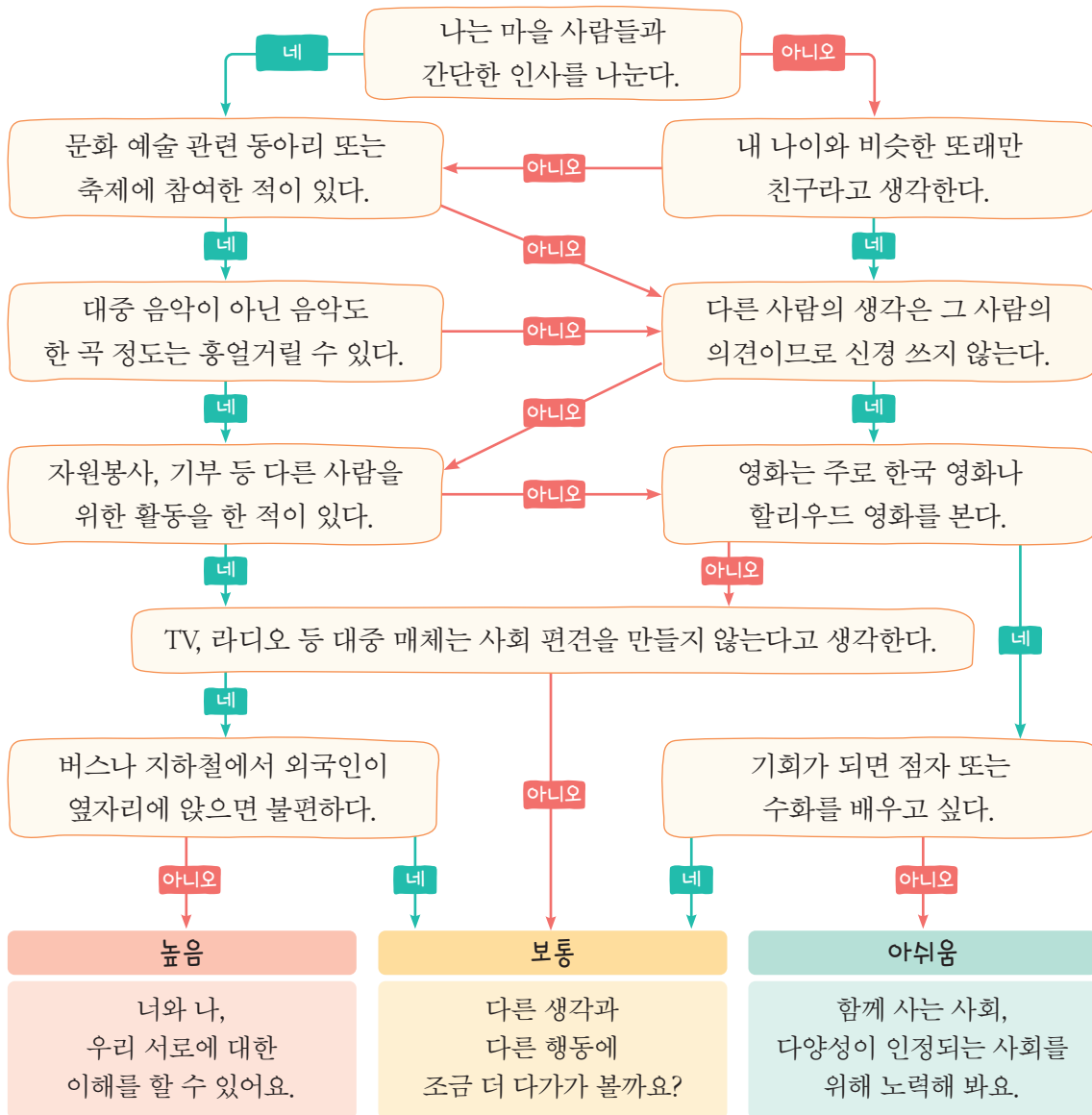
1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써 봅시다.



다음 검사를 통해 나의 문화 다양성 수준을 알아봅시다.



나의 문화 다양성 수준은 () 입니다.

내 이름은 허황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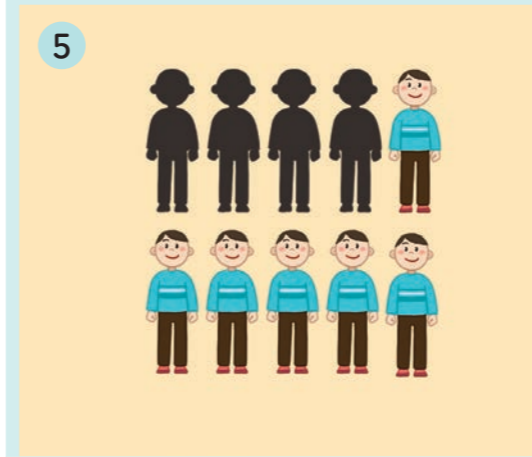
1

내 이름은 허황옥, 내 고향은 인도입니다. 가야국으로 배 타고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지요. 요즘 말로는 국제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는 황후가 됐습니다.



2

요즘 이 나라에 나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수가 어렵잡아 2백만 명이 넘는다고요.



5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 중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열 명 중 네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6

다들 알다시피, 가야는 아름다운 문화가 꽃핀 나라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줄 알았던 가야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3

가정을 꾸려서, 직장을 찾아서, 학업을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에 온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다문화'라고 한대지요?

4 다문화 수용 정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55.3	69.1	62.3	82.0	79.5

•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성인 다문화 수용성 53.95점

4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이 나라 사람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조사했는데, 54점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7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의 사람들. 어색한 게 당연하죠. 그럴 땐 여러분이 다문화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이 할미, 허황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8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고, 그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1 「내 이름은 허황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허황옥은 어떤 사람인가요?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2 '다문화'란 무슨 뜻인가요?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3 가야국에 아름다운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4 허황옥은 어떤 마음을 지닌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했나요?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2 「내 이름은 허황옥」을 통해 허황옥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Large grid-patterned writing area with a blue tab on the right side]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내 이름은 허황옥」에서 찾아 써 봅시다.

• 대상을 높여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 문물, 의견, 조건 등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이)라고 한다.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4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편견을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써 봅시다.

[Large light green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and a red paperclip icon in the top right corner]

5 시를 읽고 말하는 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세계의 아이들

방콕의 뱃집에서 아기가 울었다.
응아응아 하고 울었다.
밀림의 움집에서 아기가 울었다.
응아응아 하고 울었다.

내 고향 초가 마을에서 듣던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나라와 인종은 달라도
울음소리는 모두 같았다.

파타 언덕을 달리며
맨발의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발리의 파도를 안고 뒹굴며
노랑머리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내 고향 들판에서 뛰놀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생활과 말씨는 달라도
웃음소리는 모두 같았다.



● 주제를 찾아 주제가 드러나게 글을 썼나요?

